치 사

오늘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 개원과 봉은국악합주단 창단을 축하하며,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는 17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과 더불어 불교 문화라는 찬란한 꽃을 피워 왔으며, 불교음악 역시 시대마다의 흐름을 읽어내고 담아내며 그 한 축을 맡아 왔습니다.

오늘 불교음악원이 종단 산하의 기관으로 개원하게 되어, 앞으로 불교음악의 총체적 연구와 더불어 불교음악의 현대적 기틀이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아가 불교음악 전문가 육성을 통해 불교음악의 생활화와 불교 포교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불교음악원을 개원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봉은사 주지 원학스님과 불교음악원장 헤일스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며 격려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창단되는 봉은합주단의 무대는 김성녀, 유지숙 명창의 소리와 멀리 일본에서 오신 대일사 주지 김묘선 스님의 승무로 꾸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음악의 긍지와 자부심을 문화로 널리 알리고, 불교 음악의 우수성과 진면목을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빛내신 여러분들에게 불교음악의 향기가 오랜 시간 즐거움과 감동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불기2559년 6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